

<2021 경찰2차 가답안>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②	①	②	③	①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④	①	②	④	③	④	③

1. 다음 국가의 장례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 왕이 죽으면 옥갑(玉匣)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을 순장하였다.
- ② 고구려 :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
- ③ 옥저 :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하였다.
- ④ 동예 : 무덤 양식으로 돌무지덧널무덤이 유행하였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부여는 국왕의 장례는 옥갑을 사용했고 금을 새긴(鏤金) 옥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 또한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꺼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 ② 고구려 지배층은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기도 했다. 또한 혼인 때부터 수의를 마련하고, 장례 때에는 금, 돈, 폐백 같은 것을 후하게 썼다.
- ③ 옥저에서는 길이가 10여 장(丈)이나 되는 큰 나무곽을 만들어 한쪽에 문을 만들어 두었다가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하여 살이 다 썩으면 뼈만 가려 곽(槨) 속에 안치하였다. 곽은 가족 공용이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무로 사람의 모습을 새겨두고, 질그릇 술에 쌀을 담아 곽의 문에 매달아 놓았다.

[오답 피하기]

- ④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의 무덤 양식이다. 이것은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꺼묻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은 구조이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꺼묻거리가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선사시대 유적과 출토 유물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연천 전곡리 유적 -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 ㉡ 제주 고산리 유적 - 덧무늬 토기
- ㉢ 부산 동삼동 유적 - 조개껍데기 가면
- ㉣ 양양 오산리 유적 - 토제 인면(人面)상
- ㉤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 동검
- ㉥ 여주 혼암리 유적 - 붉은 간 토기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④

[자료 분석]

보기의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정답 해설]

- ㉠ 연천 전곡리 유적은 구석기 유적지로, 1978년에 당시 동두천 주둔 미군인 보웬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모비우스 학설이 깨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 제주 고산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로, 덧무늬 토기와 펜석기가 출토되었다.
- ㉢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 유적지로,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었는데 의례나 주술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이곳에서는 일본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일본산 흑요석제 석기가 출토되었다.
- ㉣ 양양 오산리 유적은 신석기 유적지로, 흙으로 빚어 구운 사람의 얼굴(토제 인면상), 덧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 ㉤ 부여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유적지로, 대규모 취락과 방어 시설(목책과 환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비파형동검이 발견되어 학자에 따라서는 비파형동검을 ‘부여식 동검’이라고도 부른다.
- ㉥ 여주 혼암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집터 유적지로, 민무늬토기와 붉은간토기 등의 토기와 간돌검 등이 발견되었다. 여주 혼암리, 부여 송국리 유적 등에서 발견된 탄화미는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3. 밑줄 친 ‘대궐’이 위치한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성왕 22년 봄, 대궐 동쪽에 임류각(臨流閣)을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 길이었다. 또한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 신하들이 이에 항의하여 글을 올렸으나 듣지 않고 다시 간(諫)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대궐 문을 닫아 버렸다.

- 『삼국사기』 -

- ① 외곽에 나성이 축조되었다.
- ② 김현창의 난이 일어난 곳이다.
- ③ 사비성 혹은 소부리성으로 불렸다.
- ④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었다.

정답 ②

[자료 분석]

밑줄 친 ‘대궐’이 위치한 곳은 공주(웅진)이다. 백제 동성왕(재위 479~501) 때 수도였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웅진은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된 475년부터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538년까지 백제의 수도로 기능하였다.

[정답 해설]

② 김현창의 난은 822년(헌덕왕 14) 지금의 공주 지역에 해당하는 웅천주의 도독 김현창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신라 조정에 항거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 하였다. 지금의 충청·전라·경상도 일부 지역이 반란 세력에게 장악된 전국적인 규모의 내란이었으나, 토벌군에게 중요 거점인 웅진성이 함락되고 김현창이 자결함으로써 한 달이 못 되어 진압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백제는 538년(성왕 16) 사비로 천도하면서 왕성 바깥의 시가지를 둘러싼 나성(부여 나성)을 쌓았다.
- ③ 소부리 혹은 사비성이라 불린 곳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부여)이다.

부여군은 본래 백제의 소부리군(所夫里郡)이었다. 당(唐)의 장군 소정방이 유신과 더불어 이를 평정하였다.

- 삼국사기 -

④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에 대한 내용이다. 내성(內城)·외성(外城:羅城)·북성(北城)·중성(中城)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벽의 길이는 약 23km이다.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형식으로, 평지인 부분은 일정한 구획을 갖춘 계획적인 시가지를 형성하였다.

4.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신론(起信論)에서 “여래(如來)의 넓고 크며, 끝없는 도리를 총섭(總攝)하고자 이 논(論)을 설(說)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 논(論)의 뜻은 이와 같다. 펼치면 무량무변(無量無邊)의 도리를 본질[宗]로 삼고, 합하면 이문일심(二門一心)의 법을 핵심으로 한다. 이문의 안은 만 가지 뜻을 포용하나 어지럽지 않다. 무변이라는 뜻은 일심과 같고 또한 혼융(混融)된다.

<보기>

- ㉠ 법상종을 개창하였다.
- ㉡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 ㉢ 화쟁국사(和諍國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화엄종을 창설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은 원효가 저술한 『대승기신론소』의 일부이다.

[정답 해설]

- ㉠ 원효는 당시 거의 모든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했으며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등을 저술하였다.
- ㉢ 1101년 고려 숙종 때 원효에게 (대성)화쟁국사(大聖和諍國師, 화정국사)라는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였다.

[오답 피하기]

- ㉡ 법상종을 개창한 인물은 진표이다. 원효는 교종 5교 중 법성종을 개창하였다.

㉔ 의상은 당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5. ㉑, ㉒에 들어갈 사건이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㉑ - 웅진 도독부 설치 ㉒ - 백강 전투
- ② ㉑ - 계림 도독부 설치 ㉒ - 안동 도호부 설치
- ③ ㉑ - 황산벌 전투 ㉒ - 인승보덕국왕에 임명
- ④ ㉑ - 천리장성 완공 ㉒ - 연개소문 사망

정답 ①

[자료 분석]

나·당 동맹 체결은 신라 진덕여왕 때인 648년 이루어졌으며, 문무왕 즉위는 661년, 취리산 회맹은 665년의 사건이다. 취리산 회맹은 신라 문무왕과 백제 왕자 부여음이 취리산에서 국경에 대하여 맺은 동맹이다. 당나라가 멸망한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과정에서, 허수아비 정권인 백제를 내세워 신라에게 백제와 화친하도록 강요하면서 동맹이 이루어졌다.

[정답 해설]

①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뒤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다. 백강 전투는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한 전투로, 663년 8월에 일어났다.

[오답 피하기]

- ② 663년 당은 신라의 경주에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신라 귀족의 분열을 획책하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당은 668년 고구려의 옛 땅인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지배하려 하였다.
- ③ 황산벌 전투는 백제 멸망 직전인 660년 7월 백제군과 신라군 사이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이다. 황산벌에서 계백이 결사대를 조직해 저항했으나 결국 패배했고,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다.

④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해 북쪽의 부여성(농안)에서 남쪽의 비사성(대련)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천리장성 공사는 631년에서 647년까지 이루어졌다.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하며 정권을 장악한 인물로 666년에 사망하였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죽음 이후 국론이 분열되면서 668년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6. ㉑, ㉒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을 9월, (㉑)이/가 고을부에서 우리 군사를 공격하므로, 왕이 (㉒)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㉒)이/가 장수에게 명령하여 정병 1만 명을 출동시켜 구원하게 하였다. (㉑)은/는 이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겨울 11월에 수도를 습격하였다. 이때 왕은 왕비 및 후궁과 친척들을 데리고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며 놀고 있었다.

- 『삼국사기』 -

- ① ㉑ -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 ② ㉑ - 천통(天統)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㉒ - 금성(나주)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견제하였다.
- ④ ㉒ - '훈요 10조'를 유훈으로 남겼다.

정답 ②

[자료 분석]

㉑은 후백제의 견훤, ㉒은 고려 태조 왕건에 해당한다. 견훤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침공해 경애왕을 자살하게 하고 경순왕을 옹립하였다(927). 당시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왕건이 경주에서 철수하는 후백제군과 공산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신승겸, 김락이 전사하는 등 대패하기도 하였다.

[정답 해설]

- ① 견훤은 전라도 지방군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바탕으로 완산주(전주)에 도읍하여 충청도·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후백제를 건국(900, 신라 효공왕 4)하였다.
- ③ 왕건은 궁예의 신하일 때 수군을 이끌고 금성(나주)을 점령(903)하여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는 데 큰 공을 세워 광평성 시중의 지위까지 올랐다.
- ④ 왕건은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훈요 10조를 남겼다.

[오답 피하기]

- ② 천통은 발해 고왕(대조영) 때 사용한 연호이다. 대조영은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진'(震)을 건국(698)하고 연호를 천통이라 하였다.

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누가 말[言]로 적병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라고 묻자 서희가 혼자 아뢰기를 “신(臣)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왕이 강가까지 나가서 위로하며 전송하였고,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의 군영에 갔다.

- 『고려사』 -

- ①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② 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았다.
- ③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 ④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거란의 1차 침입(993, 성종 12) 당시 서희의 외교 담판과 관련된 사료이다. 993년 거란의 소손녕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의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답 해설]

- ③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며,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나성은 개경 방어를 위한 성곽 시설로, 고려 현종 때 강감찬의 건의로 축조되었다.
- ② 고려 예종 때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을 북방으로 쫓아 버리고, 동북 지방 일대에 9

성을 쌓아 방어하였다(1107).

- ④ 고려 광종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개경을 황도(皇都), 서경을 서도로 칭하였다.

8. 밑줄 친 '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방경이 몽골 원수(元帥) 등과 더불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적(敵)을 격파하니, 적의 장수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에 들어가 숨었다.

- 『고려사』 -

- ① 승화후 온을 왕으로 삼았다.
- ② 서경 유수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 ③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하였다.
- ④ 운문과 초전 등지에서 신라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밑줄 친 '적'은 삼별초이다. 삼별초는 진도가 함락되자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김통정의 지휘 아래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평정되었다.

[정답 해설]

- ① 삼별초는 1270년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환도한 후 강화산성에서 배중손의 지휘로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기를 들었다.

[오답 피하기]

- ② 서경 유수를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킨 사건은 조위충의 난(1174)이다. 서경 유수 조위충은 지방군과 농민을 이끌고 중앙의 무신들에게 3년간이나 항거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③ 묘청의 난(1135)에 대한 설명이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1135년 서경에 대위국을 건국하고 연호는 천개,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하고 난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약 1년 만에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의 진압으로 실패하였다.
- ④ 1193년 일어난 김사미·효심의 난에 대한 내용이다. 김사미는 1193년 운문에 본거지를 두고 농민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으며, 초전에 근거를 둔 효심의 반란군과 연합하였다.

9.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승법사의 호법(護法)하는 뜻을 본받아 교장(敎藏)을 널리 찾아내는 것을 나의 책임으로 삼았다. 여러 종파의 의소(義疏)를 얻게 되면, 감히 사사로이 비장(秘藏)하지 않고 간행했으며, 책을 낸 후에 새로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 뒤에 계속해서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편집된 권질이 삼장(三藏)의 정문(正文)과 더불어 무궁하게 전해져 내려감이 나의 소원이다.

- ①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 ②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③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 ④ 강진에서 보현도량을 개설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밑줄 친 '나'에 해당하는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이다. 의천은 고려와 송, 거란 등의 불교 저술을 망라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작성하고 교장(속장경)을 간행하였다.

[정답 해설]

①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지눌은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③ 혜심은 선종과 교종의 통합에서 더 나아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여 유교와 불교의 타협을 시도하였으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④ 요세는 정토왕생을 중시하며 보현도량을 개설하였다. 또한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10.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는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여, 모든 대소신료와 서민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시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으니, 백성들의 의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정의 의론이 분분해서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은 지 몇 해가 되었다. 호조에서는 시행하기에 알맞은 사목(事目)을 자세히 마련하여 아뢰라.

(나)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해동 여러 나라와 조빙(朝聘)으로 왕래한 고사(故事), 관곡(館穀)을 주어 예우한 전례를 찬술해 가지고 오라 하셨다. 나는 삼가 옛 문적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덧붙여서, 지도를 그리고 간략히 세계(世系)의 본말과 풍토를 서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접대하던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집해 모아 책을 만들어 올렸다.

- ① 현량과가 실시되었다.
- ②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하였다.
- ③ 수신전과 홀양전이 폐지되었다.
- ④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가)는 세종 때 시행된 공법(1444)이다. 답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모든 대소 신료와 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공법은 답험손실의 폐단을 줄이려는 제도로 백성들의 여론 조사까지 거쳤다.

(나)는 성종 때 편찬된 『해동제국기』의 내용이다. 『해동제국기』는 세종 때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1471년(성종 2) 왕명을 받아 그가 관찰한 일본의 정치, 사회, 풍속, 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한 책(견문기)이다. 자료에서의 키워드는 '해동 여러 나라와 조빙(朝聘)으로 왕래한 고사(故事), 관곡(館穀)을 주어 예우한 전례를 찬술해 가지고 오라 하셨다.'라는 부분이다. '해동제국(海東諸國)'이란 일본의 본국·구주 및 대마도·이키도와 유구국(류큐국)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해동제국에서의 '제(諸)는 황제할 때 '제(帝)'자가 아니라 여러 '제(諸)'자이다. 즉 해동제국

기란 해동(바다 동쪽) 일본의 여러 나라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가 된다.

[정답 해설]

③ 세조는 1466년 수신전·홀양전을 몰수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나) 이후 종종 시기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나) 이후 광해군 시기 명나라 장군 모문룡이 후금이 차지한 요동 지방을 빼앗기 위하여 평안도 가도에 주둔함으로써 후금을 자극하였다(1622). 이는 정묘호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④ (가) 이전 태종은 문하부의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게 하였다.

※ 심화개념 손실담합법(담협손실법)

조선 초의 전세 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즉 조세는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인 30두였으며 수조권자인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담협해 조를 거두는 손실담합법이었다. 그런데 작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주(수조권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수조액 이외의 불법적인 수탈이 자행될 여지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세종 대 공법이 제정되었다. 공법은 손실담협의 폐단을 지양하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전세 제도로의 개혁을 꾀한 것이었다.

11. (가) 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얼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영락 13년 우대언 서선 등이 아뢰기를 “서얼의 자손은 현직에 서용하지 말아 적서의 분별을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영락 13년 이전에는 현직에도 서용되었던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만 과거에 응시하고 정반(正班)에 진출하는 것만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가) 을/를 편찬한 뒤로부터 금고(禁錮)를 가하기 시작했으니, 현재 아직 백 년도 되지 못한다.
- 『패관잡기』 -

- ① 『경제육전』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 ② 성종 때 6전 체제로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 ③ 양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사회상을 담았다.
- ④ 법 조항을 원, 속, 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법전은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에는 범죄자·국가재정을 횡령한 자의 아들과 재가하거나 행실이 나쁜 부녀의 아들과 손자·서얼의 문과 응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답 해설]

②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이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기까지 법률 체계의 골격을 이루었다.

[오답 피하기]

- ① 『경제육전』은 조준이 위화도 회군 이래의 조례를 모아서 관찬한 최초의 통일된 성문 법전(조선 최초의 관찬 법전)으로 『경국대전』이전인 1397년에 편찬되었다.
- ③ 『경국대전』은 양난(왜란과 호란) 이전에 편찬된 법전으로, 양난 이후의 사회상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대전통편』은 1785년(정조 9)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 편찬한 통일 법전이다. 6전(六典)의 조문은 『경국대전』을 맨 앞

에, 『속대전』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뒤의 법령 순
으로 수록하고 각각 ‘원(原)’·‘속(續)’·‘증(增)’자로 표
시하였다.

12.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릇 천자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하늘이
천자를 공중에서 내려보내서 세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게 하여 천자가 된 것인가. 여
러 현장(縣長)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제후가 되
며, 제후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천자가 되니, 천자
란 민중이 추대하여 만든 것이다.
○ 활차(滑車)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
는 것은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있으니 첫째는 사람
의 힘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무거운 물건을 떨어
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바퀴가 서로 통하고 서로 튕기는 방법
을 이용하면 천하에 무거운 물건이 없습니다.

- ①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저술하였다.
- ②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 이용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 ③ 노비제, 과거제 등 여섯 가지를 ‘나라의 줌’으로 규정
하였다.
- ④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며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이 저술한 『탕론』과 『기중도설』의
일부이다. 정약용의 『탕론』은 백성이 정치의 근본임
을 밝히고 있으며, 역성혁명을 내포(천명은 민심에서 나
오며 천자가 천명을 거역할 경우 갈아치워도 무방하다
주장)하고 있다. 정약용의 『기중도설』은 말 그대로
‘무거운[重] 물건을 일으켜[起] 세우는 방법을 그림
[圖]으로 설명한[說] 책’으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
여 물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었다.

[정답 해설]

- ① 정약용은 중앙 행정의 개혁을 제시한 『경세유표』, 지방 행정의 개혁과 목민관(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

을 밝힌 『목민심서』 등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오답 피하기]

- ② 박지원은 건륭제의 질순연을 축하하기 위해 청에 파
견되었던 친척 형 박명원을 수행하여 청에 다녀오게
되었다. 박지원은 이 과정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열
하일기』로 써서 자신의 북학론을 제시했는데 생산과
유통을 강조하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
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 ③ 이익은 나라가 빈곤하고 농업이 피폐한 원인으로 노
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승
배, 승려, 게으름 등 여섯 가지를 ‘나라의 줌’이라 규
정하고 그 시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④ 박제가 『북학의』에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
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
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다음 보고를 받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박권이 보고하였다. “총관이 백두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는데, 압록강의 근원이 산허리의 남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쪽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 만강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이 되었으니 분수령 고개 위에 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① 신해통공이 단행되었다.
- ② 피산에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 ③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 ④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은 숙종 때 이루어진 백두산정계비 건립(1712)과 관련된 사료이다. 1712년 청은 목극등을 백두산에 보내 경계를 정하러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접반사(接伴使)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를 파견하였다. 산간 협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해 백두산 천지가에 이르게 된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km 지점인 2,200m 고지 분수령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정답 해설]

② 만동묘는 조선 후기 숙종 때 명나라의 신종을 위해 세운 사당이다(1704). 송시열이 사사(賜死)될 때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낼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의 제자인 권상하가 민정중·정호·이선직과 함께 부근 유생들의 협력을 얻어 만동묘를 창건하고 신종과 의종의 신위를 봉안하여 제사 지냈다.

[오답 피하기]

- ① 신해통공(1751)은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정책으로, 정조 대에 실시되었다.
- ③ 정여립 모반 사건은 선조 때인 1589년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였다 하여, 3년여에

걸쳐 그와 관련된 1,000여 명의 동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기축옥사).

- ④ 황사영 백서 사건은 황사영이 신유박해의 전말과 그 대응책을 흰 비단에 적어 중국 북경의 구베아(Gouvea, A. de)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순조 때인 1801년에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

14. (가)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이)라는 한 책이 유포되는 것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머리털이 쭈뼛 서고 간담이 떨리었으며, 곧이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 러시아는 우리와 본래 혐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헛되이 다른 사람의 이간질을 믿어서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원교(遠交)를 믿고 근린(近隣)을 도발하여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보기>

- ㉠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하였다.
- ㉡ 주일 청국 외교관 황준헌이 저술하였다.
- ㉢ 『일동기유』를 저술한 인물에 의해 전래되었다.
-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책은 『조선책략』이다. 이만손이 주도한 『영남만민소』의 내용으로,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조선책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정답 해설]

- ㉠ 『조선책략』은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황준센)의 주장으로,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 『조선책략』에는 러시아에 대한 방어책(防俄策)의 방법으로서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 함으로써 자강책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답겨 있었다. 특히 러시아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한 연 미국수교론(聯美國修交論)을 제시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오답 피하기]

- ㉠ ‘조선 중립화론’은 갑신정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 무렵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조선 정부에 건의하였고,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유길준도 한반도의 중립화론을 집필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중립화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일동기유』는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수신사로 처음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가 메이지유신 이후 발전된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기록한 책이다.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15. 다음 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제1관 앞으로 대한민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과 인민이 거류하는 경우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제2관 이번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양국은 서로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원을 설립하는 데 모두 편의를 봐줄 수 있다.

제5관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犯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 ① 광무 연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 ② 대한매일신보가 발간되고 있었다.
- ③ 금본위 화폐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 ④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은 대한 제국 시기인 1899년 체결된 한·청 통상 조약의 일부이다. 대한 제국은 1899년 청과 대등한 입

장에서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은 서로 균등한 자격으로 거류민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전권 대사를 교환하고 총영사관을 설치하도록 약정하였다.

[정답 해설]

- ① 대한 제국은 고종 재위 시기 연호로 광무(光武)를 사용하였다(순종 때에는 ‘융희’를 연호로 사용). 고종은 아관파천 후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대내외에 자주 주권 국가임을 과시하고자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어 국호도 조선에서 대한(大韓)으로 바꾸었다.

※ 한·청 통상 조약이 체결된 1899년에도 계속 광무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옳은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베델이 1904년 창간한 신문으로,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 선언 친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 ③ 금 본위제는 1905년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시행되었다.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한국의 화폐를 일본의 화폐 제도에 따라 금 본위제로 하고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하여 일본의 금융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하였다.
- ④ 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아관파천). 이후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던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대한 제국을 선포하였다.

16.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황제는 외관상으로는 아직까지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대신들은 당분간은 일본인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이 공포되고 난 며칠 후, 이로 인하여 한국 민중의 동요가 그렇게 극심하게 증대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후에야 그때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추가 협약 사실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

- ①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방이 규정되었다.
- ②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③ 베베르-고무라 각서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 ④ 대한 제국 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이 조인되었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조약’은 1907년 체결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이다. ‘한국 대신들의 일본인 대체(한·일 신협약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와 추가 협약에 대한 제국의 군대 해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② 고종은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이위중, 이상설, 이준을 특사로 파견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였다. 이후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으며 한·일 신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러·일 전쟁의 전세가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화 방안을 확정하였고, 이어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한다는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1904. 8).
- ③ 베베르-고무라 각서는 1896년 서울 주재 러시아 공

사 베베르(웨베르)와 서울 주재 일본 공사 고무라 사 이에 조선의 각종 사안을 놓고 교환한 각서로 아관파천(1896) 이후 일본이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와 세력 균형을 위해 협상한 것이다.

- ④ 대한 제국 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이 조인된 것은 을사조약(1905. 11, 제2차 한·일 협약)이다. 을사조약 비준서에는 고종 황제의 서명이 빠져 있었으며 고종과 순종은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17.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민족은 맨손으로 분기하고 붉은 피로써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에 있어 한 신기원을 이룩했다. …… 갑진(甲辰)의정서 6조와 을사조약 체결 이래 독립운동이 하루라도 그친 적이 없었으니, 독립을 위해 순사(殉死)한 우리의 의병이 수십만이요, 독립을 위해 순사한 우리의 열사가 천백이며, 우리의 지사단(志士團) 중 아직 죽지 않고 국내외로 바삐 뛰어다니,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국혼(國魂)을 불러일으키는 자 또한 수없이 많다.

- 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
- ③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을 저술하였다.
- ④ 친일적 대동학회에 대항하여 대동교를 창시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국혼을 강조한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일부이다. 박은식은 이 책에서 3·1 운동을 두고 맨손으로 일어나 붉은 피로써 독립을 요구한 세계 혁명사에서 신기원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답 해설]

- ④ 박은식과 장지연 등은 1909년 대동교를 창설하여 당시 친일 유교 단체인 대동학회에 저항하여 민족정신을 기초로 유교를 조직화하는 민족적 종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1934년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은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학 운동은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 사상과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 ② 백남운은 『조선 민족의 진로』라는 글에서 무산 계급과 유산 계급이 연합하여 사회 해방을 이루는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
- ③ 신채호는 『최도통전(최영)』, 『이순신전』,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을지문덕전』 등을 저술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8. 밑줄 친 ‘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단(本團)은 일찍부터 실행을 중하게 여기고 발언을 피하여 왔다. 그런 까닭으로 이번 최홍식, 유상근 두 의사의 다롄[大蓮] 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침묵을 지켰으나, 놈들 간악한 적은 여러 가지로 요언(謠言)을 만들어내고, 또 다롄 폭탄 사건은 국제 연맹 조사 단원을 암살하려는 음모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바이다. 본단은 왜적 이외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같이 친우로 대하려 하며 절대로 해치지 않으니, 이것은 홍커우 공원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 ①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군대식 조직을 갖추었다.
- ② 대종교 교인들이 결성하였고 북로군정서에 합류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인 김구에 의해 결성되었다.
- ④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력 양성을 피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본단’은 한인 애국단이다. 한인 애국단의 최홍식, 유상근은 1832년 5월 중국 다롄[大連]에서 국제 연맹 조사단원을 마중 나온 일본 고관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답 해설]

- ③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고, 독립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931년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한인 애국단과 관련된 사건으

로는 1932년 이봉창의 일왕 폭살 기도 사건과 같은 해 있었던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 사건이 대표적이다.

[오답 피하기]

- ① 1915년 결성된 대한 광복회는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군대식 조직을 갖추었으며 공화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 ② 중광단(1911)은 대종교인 서일을 중심으로 북간도에서 조직되었으며, 정의단·군정회 등으로 확대·발전하다가 1919년 북로군정서군으로 개편되었다.
- ④ 의열단은 1926년 김원봉과 일부 단원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훈련과 군사 정치교육을 받았으며 1932년에는 난징 근처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해 군사 훈련에 힘썼다.

19. 밑줄 친 ‘본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全)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며 이익을 보호할 만한 완전한 새 정권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 ① 미 군정 선포 직후 결성되었다.
- ② ‘기회주의 일체 부인’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 ③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았다.
- ④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의 밑줄 친 ‘본 위원회’에 해당하는 단체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이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조선 총독 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은 여운형은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정답 해설]

-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미군의 남한 지역 진주에

대비하여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중앙 조직을 실질적인 정부 형태로 개편하였고 지방의 각 지부는 인민 위원회로 전환하여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는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조선 인민 공화국은 조선 공산당이 실권을 장악하여 좌익 정부나 다름없었으며, 미 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미 군정 선포(1945. 9.) 이전인 1945년 8월에 조직되었다.
- ② 기회주의의 일체 부인을 강령으로 내세운 단체는 신간회(1927)이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과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국내 질서의 자주적 유지를 통한 대중 생활의 확보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 ③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중심 인물은 여운형과 안재홍이었다.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좌우합작위원회이다.

20. (가), (나)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우리 진보당은 오늘 국민 대중의 절대적 기대와 촉망을 받으면서 우렁찬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렸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광범한 근로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 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입니다.

(나) 상아의 진리탐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 ①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 ②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졌다.
- ③ 신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④ 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되었다.

정답 ③

[자료 분석]

(가)는 1956년 진보당 창당 선언문, (나)는 1960년 서

울대학교 문리대 학생의 4·19 선언문의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③ 1958년 자유당은 반공 투쟁 위원회를 구성해 야당 및 각계의 반대에 반공이란 이름으로 위협을 가하며,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답 피하기]

- ① 1964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적절한 배상이 없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여 ‘굴욕적인 한·일 회담 반대’,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등을 외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6·3 시위).
- ② 1954년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국회의원 재적 수 203명의 2/3인 135.33명, 즉 136명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었으나, 투표 결과 135명이 찬성했으므로 이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뒤 ‘사사오입’, 즉 반올림하면 135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의결 정족수는 135명이라고 주장하며 통가를 선언하였다(사사오입 개헌).
- ④ 장면 내각 시기인 1960년에는 민주당 내부의 구파와 신파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구파가 분당하여 신민당을 창당하였다.